

'풍운아' 김진우·최희섭의 야구 인생 2막 ▶2

주민들이 동네 둘러 오월 영화제 ▶7

유럽 챔스리그 내일부터 4강전 ▶1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http://kwangju.co.kr)

제19471호 1판 2013년 4월 23일 화요일 (음력 3월 14일)

## ‘추경’ 지역 현안 모두 탈락…국회의원이 나서라

市 10·道 5개 신규 사업  
한 건도 반영 안 돼  
국회 심의 총력전 펴야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첫 편성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광주·전남의 신규 현안사업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누락된 현안사업들을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대 악’ 극복, 복지강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문화콘텐츠 활성화 등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이 세입결손 충당분 12조원을 빼면 실제 5조3000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전남이 건의한 신규 현안사업을 모두 제외한 것은 지역의 낙후도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건의사업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광주 도심하천 생



보성 햇 녹차 따기

22일 보성군 회천면 춘파디원에서 올해 첫 녹차 새순을 따는 작업이 시작됐다. 곡우(穀雨) 즈음에 수확한 '우전'(雨前)은 녹차 중에서 최상품으로 꼽힌다.

태복원사업,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치과소재·부품 기반시설 구축 등 10건 1368억원이다. 전남도도 목포~보성간 남해안 철도 고속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5개 사업 1900억원을 건의했으나, 모두 미반영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추경에서 빠진 현안사업들이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는 최소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조성 용역비 30억원과 치과 소재 부품 기반시설 구축 용역비 30억원,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용역비 30억

원 등 3개 사업 9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의 정부정책 반영 추진 등 지역현안의 추경 반영을 건의했다. 광주시 홍신하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은 새 정부의 우선 사업이 돼 추진율도 높을 것”이라며 “단 한 건의 현안사업이라도 밀어넣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정부, 여수산단에 종합방재센터 세운다

###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폭발 사고와 관련, 정부가 종합방재센터(예산 162억원)와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65억원) 건립에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종합방재센터 건립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국회는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건립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와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종합방재센터는 석유화학업체 60여개가 물려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전남도는 현 정부의 안전에 대한 강조 기조에 따라 종합방재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는 여수와 광양지역 산업단지의 폭발 사고와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한 화상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추진된다. 의사 5명 등 26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며, 광주시와 전남·전북 권역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운영된다. 센터 설립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성곤(여수갑)이 대표 발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중형마트 120여곳 성업

종교에 신음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 기업이 운영하는 중형마트는 4월 현재 영암마트 55곳, 덕발 32곳을 비롯해 120여곳이며 동네슈퍼와 비슷하거나 2~3배 정도 큰 규모의 DC 마트, 하나로마트 등 중·소형마트는 1400여 곳에 달한다.

이들 중형마트들은 대형마트 기준인 총 면적 3000㎡에는 못 미치지만 비교적 큰 규모로 공산품, 가공식품, 과채류, 축산물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본사 차원에서 유통을 관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초 유통법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입점이 제한되고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점을 살려 이들

마트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면서 골목 상권까지 깊숙이 침투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광주시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소규모마트를 운영한 조모(52)씨가 경영난과 이로인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광주일보 22일자 6면)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공산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대신에 상호를 쓰는 이마트·에브리데이·상품 공급점과 같은 유형의 중형마트도 월 평균 10여곳꼴로 문을 열어 영세 상인들을 시름에 빠뜨리고 있다.

<2면에 계속>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8팀의 예술가를 따라  
함께 만드는 예술작품!

# 교로우

8+Know Follow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아시아문화마루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창작프로그램

## 시민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여기간 : 4월~5월 / 전시기간 : 6월



권승찬

설치미디어아트  
시민들의 식사에 대한 리서치와 평균값을 구하고  
설치미디어아트 작품 만들기  
참여 : 매주 월, 화



김경란

설치미술/업사이클아트  
일상에서 흔히 버려지는 과자봉지로 꽃 만들기  
참여 : 매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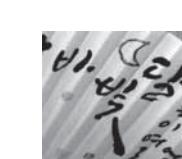
백상우

설치미술  
고무신 together  
시민들의 영웅만들기  
참여 : 매주 토요일



설 박

한국화  
작가의 작품을 엽서로 만들고 집으로 우편배달  
해드려요  
참여 : 매주 금요일



육감각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를 이해하고, 나만의  
손글씨로 에코백&나비부채 만들기  
참여 : 4/20, 5/17, 6/6



이현옥

사진  
광주의 소소한 역사를 지난 오래된  
흔적들을 찾아 거리로!  
참여 : 매주 토요일



CBN

미디어아트  
작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작품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아카이빙팀



아시아문화마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홍보관  
501-180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tel 062-236-0481 e-mail creative@korea.kr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문화마루로 연락주세요.